# 해양관광 워크숍 토론문

##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

-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안희정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
- 특히, 황해를 지중해로 만들자라는 구상을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고, 이 의미 속에는 지중해가 가진 문명사적 측면과 교류, 문화, 역사, 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, 교류의 핵심이 한중관계로서 중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충남 서해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
- 환황해시대 도래될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양관광측면에서 도와 연구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려 하고 있음
- 서해안을 둘러싼 문명과 문화교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함

## 이인배 선임연구위원

- 도의 큰 정책방향에서 황해를 지중해로라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도차원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, 해양수산국의 관심을 갖고 있음에 따라 서해안비전을 다각적인 부문에서 만들어 내고 있으며 오늘의 워크숍은 해양관광 측면에서의 접근이 되는 워크숍임
- 마리나와 크루즈와 해양스포츠, 섬과 어촌 관광자원, 항포구, 갯벌, 해수욕장, 씨푸드, 재래시장, 특산물, 해양이벤트와 축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제시되었음
- 그러나 이것들을 한꺼번에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, 오늘 워크숍이 2-3차 전문가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때 충청남도가 해온 사업들 중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화시킬 부문과 이종훈 박사의 발표와 같이 국가차원에서의 해양관광 SOC기반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충남 도차원에서 선택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 오늘 워크숍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리가 되고 연구원, 충청남도, 시군의 역할 및 업무를 찾아야 할 것임
- 해수부의 전체적인 사업 측면과 문화관광관광 쪽의 사업 등이 제시

- **[국토교통부의 1월 18일 해양관광진흥지구]** 발표되었음

-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의 시설 도입, 지구 도입하는 측면의 규제완화
- 세제와 재정지원을 통한 해양관광 육성 및 활성화

- 창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구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, 충청남도 또한 천수만 지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맞도록 재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사업과 연계하여야 할 것임

• 기존의 진행사업과 해양관광 부문의 주요 SOC와 관광기능 중 대중국 관광객 유치,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할 부문과 신규사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음

– 대중국 관광객 유치 부문은 현재는 쇼핑관광 중심이나 10년 이내에 쇠퇴할 것에 대비하여 충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질적인 부분의 상품개발이 필요

• (이종훈 박사께) 타 지자체의 해양관광 동향이나 정책사례 등을 소개해주시면 선진 해양관광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 수 있을 것임

→ **이종훈 박사 :** 마리나와 크루즈는 지사님 관심사항으로서 충청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 이를 타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특히, 울산이나 거제 등 타 광역 시도가 아닌 시군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. 마리나와 관련해서도 광역 시도 차원이 아닌 시군 차원에서 목포, 여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충남에서는 좀 늦게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음.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임

→ **전종귀 교수(좌장) :** 우리나라 전국의 마리나는 활성화 되고 있는 편이나 충남의 경우 마리나가 없고 해양레저 관광 분야의 연구도 타 지자체 연구원에서 수행했으나 충남에서는 좀 늦은 것 같음.

## 홍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

• 해양관광의 범위만큼이나 사업량이 많아 충남에서는 한번에 다 담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,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국책연구원이니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아쉽게도 충남의 계획수립이 거의 없음, 예로 타 지자체는 광역권 해양관광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이 아님에도 2005년에 수립하는 등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충남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임

•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가 부활하면서 유일하게 다시 생긴 조직이 해양레저과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이 마리나와 크루즈이며 제1차 해양관광기본계획 수립하였음(현재는 크루즈 기본계획과 마리나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)

• 법률로는 크루즈법, 마리나법, 해수욕장법을 통과시켰으며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

•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 사업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부분이 많아 각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할 것 임

– 해중레저에 부문도 접근이 됨에 따라 [강원도(해중레저공원) 등의 사례를 볼 때] 이러한 추세에 반영하여 충남에서도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임

• 충청남도 메가시설을 만들 수 없다면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

– 충남의 경우 해안선의 길이가 1200㎞정도 되며 우리나라의 10%를 차지하고 있음, 태안의 경우 500㎞가 넘는 등 제주도보다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

– 충남의 경우 단위자원별(대천해수욕장, 춘장대 해수욕장 등)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, 어촌체험장, 어촌민속전시관, 박물관 등을 패키지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추세인데 그 브랜드가 없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수립중인

– 해수욕장기본계획내에 이런것에 대한 매칭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

• 우리나라 10대 해수욕장에 충남의 해수욕장이 2곳이 포함되어 있으며, 수도권, 전북권, 전국권 등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력 있는 관광여건이 충남은 매우 강하므로 기존의 유입력 있는 관광지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함

• 해양관광트렌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으로 구분되며, 지금은 국민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해수욕장, 해안경관감상, 수산물체험 등에 대한 관심도 및 매력도가 많으므로 기존의 관광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

**• 해양관광의 새로운 자원으로는 마리나 크루즈 등은 단기에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에서 거점형 마리나를 육성한다 하나 마리나는 수요자 지배시장성격이 강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현재 충남은 준비하는 단계로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**

– 수정계획에서도 제1차 수정계획에서 충남은 거점마리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마리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며, 수정계획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5년내에 민간투자가 가능하지 않다면 기초인프라를 간단하게 학교설립 등을 통해 충남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할 것

– 크루즈가 잘되는 이유는 중국을 기점으로 코스타크루즈가 모항을 만들어 세 나라 이상의 방문지를 만들어 한국, 일본, 중국 등 기점베이스를 갖추고 한국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제주, 인천, 부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. 이는 크루즈터미널이 정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임

– 초기단계에서는 쇼핑관광을 주로 하는 관광객 특성을 반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서해안의 대안도시를 중심으로 크루즈를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, 그러나 단기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

**– 충남에서는 크루즈 터미널을 무리해서 만들기 보다는 주변의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(기항배후지로서의 역할 강화)**

- **지자체에서는 해양관광을 다루는 부서가 해양레저환경팀과 관광기획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협치하는 행정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임**

##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

- 대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듯
- 지리적 측면에서 내파이론과 외파인론이 있는데 물리적인 근접성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결절지점에 도로 및 고속도로로 접근하거나 항공이나 항만을 통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연계해서 충남으로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중요
- 전라남도 해저터널 정책과 함께 대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도 방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충남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방문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

## 박근수 배재대학교 교수

- 충남에서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중요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함

– 시스템(편리성), 매력성(시설 및 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), 접근성(쾌적한 접근성) 부문에서 중요할 것임

- 시스템부문의 벤치마켕 사례

– 옥토퍼스카드 :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, 버스, 페리 및 쇼핑까지 가능한 카드로 충전금액을 사용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음

– 페리나 수상택시 등의 형태로 해양관광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방안 고려

- 해양관광부문의 섬관광 메뉴 개발 필요
- 운영시 관광객 유치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케팅 정책 방향 마련 필요

– 전통음식 뿐만 아니라 퓨전형태의 먹거리 개발로 외국인을 위한 시장성향에 따른 메뉴개발 필요

-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에서 올해 관심있는 부문이 대안카지노의 크루즈카지노로 정책적인 부문에 대한 충남의견 반영이 필요
- 해양관광 관련해서 야경관광프로그램 개발 필요

## 조홍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공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

- 관광객입장에서 해양관광지로서 바다는 쓰레기가 많고 불쾌한,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관광객으로 바다에 대한 느낌은 좋지 않음
- 해양을 전공하는 과학자 입장에서 해양관광정책포럼 등에서 바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배제된 정책들이 대부분임
- 바다에 대한 연구들이 배제되는 느낌이 들어 쾌적한 해양, 생태환경 부문 등에서 필요한 해양정보, 해양교육 등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

## 최인호 청운대학교 교수

- 충남 해양관광의 방향성, 매력성을 높이는 방법, 대중국 관광객 등 세가지 방향으로 토론
- 충청남도의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교류와 역사, 문화에 대한 기본적 연구가 부족
  - 부산시 한국 한문화 중심 연구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사업진행시 원형콘텐츠에 대한 탄탄한 구성을 통해 정책적 큰 그림을 작성할 수 있음
- 크루즈는 [기항지가 매력적이어야 한다]라는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수요자의 트렌드를 상품 및 상권 개발 등 매력물을 조성하여야 함
  - 경북 [면서기가 추천하는 단골 맛집] 등의 책자 발간을 통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
  - 이런 사례들을 통해 관광지로서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마련
- 중국인 관광객을 충남으로 유치하려면 충남에 가야만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중간의 교류의 기초자료가 구축이 되어야 와야 할 당위성을 만들 수 있을 것임
- 한류촬영지 유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
  - 2012년 서울시와 남이섬에 태국관광객의 급증이유는 한류촬영지로 그곳에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졌으며, 또한 남이섬에는 태국어가이드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
##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- 중국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는 관광매력물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
- 서해안의 음식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제시 필요

##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

- 브랜드 구축 및 홍보, 스토리 발굴 등을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인력에서 중간기능, 인력, 조직이 필요(인천, 서울 등에서는 이미 운영 중)
  - 정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매개자로 수요자에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

## 김종환 충남 해양수산국 주무관

- 해양헬스케어를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는가? 가능성이 있는지 충남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?
- 원산도, 난지도 등에 유치할 경우 해양자원의 치유와 의료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과 관광자원으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?

##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

- 강원도에서는 해수와 심층수로 상품화하고 있으며, 강원도 해양리조트의 활성화가 해수풀장과 심층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충남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
- 예를 들면 머드엑스포 개최시 머드와 건강 쪽의 상품을 결합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함께 시설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
- 헬스케어+대중국관광객 유치와 맞물려 타 지자체보다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할 것임

## 김종환 충남 해양수산국 주무관

-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초연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예산확보를 통해 기초연구 후 2017년 시범단지 동해, 남해, 서해에 조성한 후 2년간 시범사업 후 제주도를 포함하여 4개 단지 조성할 예정, 얼마만큼의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충남에서는 어떤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하는가?

## 홍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

- 해양헬스케어와 관련하여 R&D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두 가지 딜레마가 있음
- 첫 번째로 과연 효과가 있는가? 치유가 되는가? 아니라면 두 번째로 휴양이 되는가? 등의 문제가 있음
- 치유가 되건 휴양이 되건 입지 자유적이진 않으며, 어떤 매력물이 있는가가 선제조건임
- 해양헬스케어사업은 울진에서 먼저 시작하여 국회에서 4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으로 아직까지는 실험단계로 볼 수 있음
  - 해양헬스케어산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배후시설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의 우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인프라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등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냐도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시간이 필요한 산업일 것으로 사료됨

- 보령머드가 가용적 범위에서 치유관광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, 상품화시키면 새로운것의 투자보다는 현 기존 것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남에서 연구하면 될 것임

### 이종훈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부연구위원

- 일본에도 해양헬스케어 및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
- 농어촌지역에 많이 입지하여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비 및 시설 고정비 등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, 집객력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흑자내기가 어려운 실정임
-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충남에서는 머드를 가지고 있는 보령시가 관광객규모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,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 흡입력 및 유입력을 갖춘 후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것임